

 국토교통부	<h1>보도자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보다나은 정부
	배포일시	2018. 11. 12.(월) 총 7매(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 과장 이정희, 팀장 박정호, 사무관 임정환 • ☎ (044) 201-4970, 4878
보도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2.(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한국형 스마트시티’ 첫 수출 교두보는 “아세안” 11일부터 싱가포르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집중 홍보

- 정부가 세종과 부산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해외수출의 첫 출발점으로 아세안에 진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부대행사로 11월 11일(일)부터 15일(목)까지 5일간 싱가포르 선택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ASEAN Smart Cities Showcase)에 참여해 한국 스마트시티의 집중 홍보에 나선다.

< 2018 동아시아 정상회의 >

- ▶(時/所) '18.11.14~15 (양일간) / 싱가포르 선택 컨벤션센터
- ▶(일정) 한-아세안 정상회의(11.14) /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11.15)
- * (EAS) ASEAN 10개국 + 한·중·일 + 미국·호주·뉴질랜드·인도·러시아 (18개국)

- 특히, 지난 9월부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비전을 아세안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 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 싱가포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 7개국이 참여하여 각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기술을 소개하고 아세안과 협력계획을 전시하기 위한 취지다.

□ 우리나라는 한국 스마트시티의 강점 및 정책 추진현황과 더불어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의 미래상을 슬라이딩 스크린을 통해 증강현실(AR)로 구현한다.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사진)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포켓몬 고” 게임이 그 예시

○ 우선,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시설과 건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08년)로 법률제정을 통해 한국의 고유 브랜드인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사업의 추진 과정을 소개하고,

○ 또한, 최근에는 IoT,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단위에 접목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와 스마트시티 특위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도시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특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한국의 핵심 테마로서, 각 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스마트 솔루션 등이 상세히 소개된다. 세종의 경우, 스마트 모빌리티·에너지·환경·안전을 주요 스마트 솔루션으로, 부산의 경우, 홍수통합관리, 에코필터링 등 스마트 물관리를 주요 솔루션으로 설정하여 우리 기술을 홍보한다.

※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형을 제시하고자 1월부터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 중

□ 또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와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하여 향후 다른 나라와의 협력 모범사례로 활용할 전망이다.

○ 정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현재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에 참여 중으로, 지난 9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협력도시로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향서(LOI)**를 전달한 바 있다.

○ 본 시범사업은 한국의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를 모델로 아세안 국가에 진출하는 **최초 사례**로, 정부는 내년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력을 통해 **기본구상(CP)** 또는 **마스터플랜(MP)**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가하는 **18개국 정상급** 뿐만 아니라, **400명 이상**의 각국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들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스마트시티에 대한 대외적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나아가, 한국 스마트시티의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우리기업의 아세안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발맞춰, 정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 전략**과 ODA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가칭)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추진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등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과 스마트시티 신기술에 대한 **교차협력·공유**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스마트시티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향후 **한국형 모델의 해외수출**에 긍정적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임정환 사무관(☎ 044-201-48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참고1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참여 계획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개요

- 아세안 각국이 선정한 도시(26곳)를 아세안外 국가와 1:1 매칭,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싱가폴*** 주도의 **협력체계**(‘18.3 발표)
- * 싱가포르 외교부와 Centre for Liveable Cities(국가개발부 연구기관)가 주도
- (참여국가)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노르웨이, 스위스, UNDP, 독일** 등과 참여 협의 중

< 아세안 10개국 선정 대상도시(26곳) >

국가(도시수)	도시	국가(도시수)	도시
브루나이(1)	반다르스리브가완	미얀마(3)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캄보디아(3)	프놈펜, 바탐방, 시엠레아프	필리핀(3)	마닐라, 세부, 다바오
인도네시아(3)	자카르타, 바뉴왕이, 마카사르	싱가포르(1)	싱가포르
라오스(2)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태국(3)	방콕, 푸껫, 촌부리
말레이시아(4)	쿠알라룸푸르, 조호르바루, 코타키나발루, 쿠칭	베트남(3)	하노이, 호찌민, 다낭

□ 한국 참여현황

- (추진배경) 우리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참여 중으로,
 - 아세안 도시별 스마트시티 구상을 바탕으로,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콘텐츠, 기술 등을 연계가능한 곳을 우선 매칭 검토**
- (추진계획)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협력도시로 선정*,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연계 가능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입 추진**

* 한-말 국장급 양자면담을 통해 협력의향서(LOI) 전달 및 협력방안 논의(9.19)

- 세종(5-1생활권) 및 부산(에코델타시티) 모델로, **스마트시티 플랫폼(LH) 및 스마트 물관리(K-Water)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한-말 스마트시티 **협력 MOU(장관급)* 체결** 및 ASCN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고위급 양자회담 및 정보교류 추진**(‘19년)

* 시범사업 추진, 정책·정보 공유, 협력사업 발굴, 공동포럼 개최, 인적교류 등

⇒ 우리 국가시범도시의 첫 해외진출 선도사례로서, 시범사업 추진 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제고 및 경제·산업 활성화 기대

□ 전시회 개요

- (時/所) '18.11.11~15(5일간) / 싱가포르 선택 컨벤션센터 Hall 405EX
- (참가국) 한국외 싱가포르, 중국, 일본, 미국, 호주, 러시아 참여(7개국)
 - 싱가포르의 경우, 단독 섹션을 구성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전시
- * ASEAN Federation Lockers(스마트로커), Anacle(소프트웨어 솔루션), Grab(공유차량), Skylab(IoT), STE(스마트가로등), Accreditation@SG:D(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등 참여
- (관람) EAS 18개 회원국 정상* 포함 총 400여명(VIP 관람예정)

□ 한국관 부스배치 : 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앙벽 설치

- 중앙벽 양면(AR·멀티영상)과 끝벽(AR)을 활용,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 및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시범사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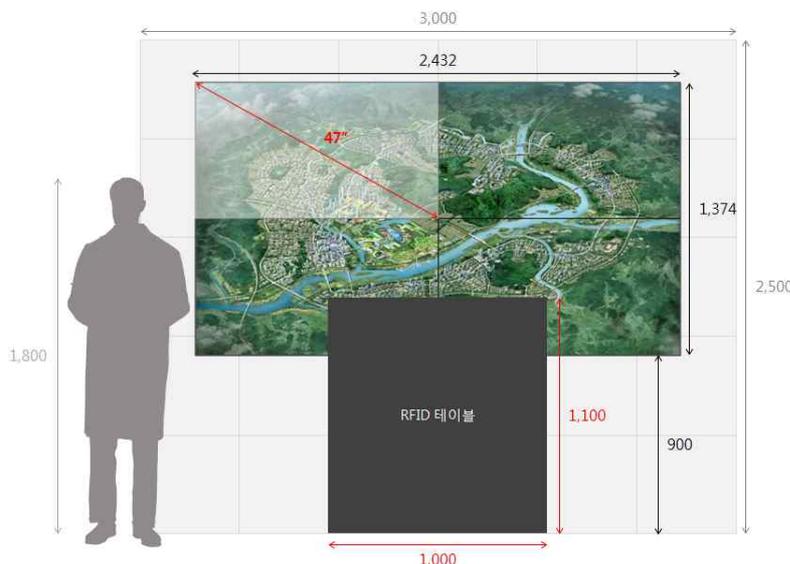
< 상세 전시 내용 >

① Korea Smart City as a leader

- (주요내용) 한국의 스마트시티 강점 및 주요정책 추진현황 홍보
 - (역사) 다양한 신도시 건설경험과 세계최고 수준의 ICT인프라를 바탕으로 U-City를 도입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법률제정 등 홍보
 - (정책) IoT, AI 등 첨단기술의 도시접목을 위해 4차위와 특위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주도해 왔다는 점을 강조
- (방식) PPT 형식으로 구성하여 VIP 관람시 설명자료로 활용*
 - *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전시하는 대형 멀티비전(47인치 4개) Wall을 활용

② National Pilot Smart City, Sejong

- (주요내용) 국가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 에너지/환경 · 안전 등 주요 스마트 솔루션*을 그래픽 영상으로 구현
 - * 자율주행과 공유차량, 정보망 공유를 통한 안전망 구축 및 도시통합플랫폼 운영, 3D공간 정보 및 디지털트윈을 통한 도시관리, 자원순환시스템 등
- (디바이스) 대형 멀티비전(47인치 4개) Wall 설치(2.43m x 1.37m)
- (방식) 6개의 RFID 모듈*을 활용하여 관련 콘텐츠 영상 송출
 - * 관람자가 테이블에 놓인 모듈을 태깅영역으로 이동 시, 관련 영상 송출



< 스마트 안전 화면 예시 >



< 스마트 모빌리티 화면 예시 >



③ National Pilot Smart City, Busan

- (주요내용) 국가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기본구상 및 솔루션*을 증강현실(AR) 스크린 속 애니메이션으로 구현

* ICT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통합수질예측시스템, 수열에너지 활용, 에코필터링, 도시의 에너지 자립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디바이스) AR(증강현실)* 슬라이딩 스크린 설치(3m x 1.6m)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사진)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포켓몬 고” 게임이 그 예시

- (방식) 스크린 화면을 터치하면 해당 정보가 그림·영상으로 송출*

* 많은 분량의 영상과 텍스트를 관람자에 효율적·시각적으로 제공 가능



④ Smart City Cooperation Project for ASEAN

- (주요내용) 한국의 해외진출 현황 및 ASCN 시범사업 계획 홍보

- (진출현황) 쿠웨이트(압둘라), 볼리비아(산타크루즈), 인도(갈리안돔비블리) 등 스마트시티 진출현황을 세계지도에 표시, 클릭 시 상세내용 팝업

- (시범사업)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 홍보

- (디바이스) 끝벽에 AR(증강현실) 슬라이딩 스크린 설치(3m x 1.6m)

*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소개하는 전시물과 동일 크기 및 방식